

|                 |
|-----------------|
| 보 도 일 시         |
| 2021. 6. 3. (목) |
| 배포 즉시           |

|     |      |     |                          |
|-----|------|-----|--------------------------|
| 매 수 | 참고자료 | 사 진 | 담당부서 : 기획감사담당관 홍보팀       |
| 2   | ×    | ○   | 담당관 : 김동석 (02-3677-2050) |
|     |      |     | 팀 장 : 이승구 (02-3677-2060) |
|     |      |     | 담 당 : 강수정 (02-3677-2062) |

## 김종천 과천시시장, 김부겸 국무총리 면담...“과천시 대안수용 및 유희지 문제 항구적 해결방안 마련 강력 건의”

○ 김종천 과천시시장 “(故)이건희 미술관 건립”, “종합병원 중심 의료바이오클러스터 조성” 청사 유희지 활용방안 건의 ... “청사 유희지 활용 문제 항구적 해결 위해 최선 다할 것”

○ 김부겸 국무총리 “시민들의 입장 이해하며 도움 줄 방안 검토하겠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3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나 과천시민 의견에 기초해서 청사 유희지 활용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김종천 시장은 2일,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나 정부의 과천청사 일대 주택 공급계획은 과천시와 사전협이나 하수처리 등 기반시설 고려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부적절한 계획이며, 과천을 주택공급 수단으로만 생각한 것으로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강력하게 항의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과천청사 일대에 주택을 공급하지 않는 대신 과천과천지구 용적률 상향과 자족용지를 활용하고,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지로 검토하고 있는 과천시 외곽지역에 주택을 공급하는 과천시 대안을 적극 수용해 줄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시장은 과천청사 유희지 문제를 항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활용방안을 제안했다. 김 시장이 제안한 두 개 안은 ‘(故)이건희 미술관 건립’과 ‘종합병원 중심 의료바이오클러스터 조성’이다.

‘(故)이건희 미술관 건립’에 대해서는 과천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과천과학관, 추사박물관 등 품격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시설이 자리잡고 있으며, 사통팔달의 교통인프라를 갖춘 지역으로 전국민 문화 향유에 대한 접근성이 뛰어나다고 설명했다. 이에 현재 미술관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어느 지역보다도 뛰어난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 ‘(故)이건희 미술관’이 과천에 건립 될 경우 청사 유희지는 미술관을 중심으로 문화예술 공간을 갖춘 공원이자 과천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 설명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각계각층의 시민이 참여하는 (가칭) (故)이건희 미술관 건립 범시민 대책 위원회 구성, 과천시 실무 TF팀 구성 및 운영 등 미술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 전했다.

‘종합병원 중심 의료바이오클러스터 조성’은 이전에 발표한 종합병원 중심의 의료바이오클러스터를 청사 유희지 4, 5번지 일대에 조성해 줄 것과 필요시 청사 유희지 4, 5, 6 번지 모두를 시에서 매입하겠다는 제안도 함께 드렸다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김 시장이 설명한 과천시 대안과 청사 유희지 활용방안에 대해 듣고, ‘과천시와 시민들의 입장을 이해하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라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김종천 시장은 정부가 이전보다 과천시와 시민 여러분들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 문제가 시민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